

심사평

80년 5월 광주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80년 5월의 참혹했던 역사적 진실과 자유와 해방을 향한 민중적 열망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또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의 가슴 아픈 증언들은 그 역사적 현장의 참담함을 진실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증언이 가닿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비롯된 재현 불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를 일정 정도의 맹목의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솔하게 시도되었던 시적 형상화를 넘어서는, 그래서 80년 5월 광주의 빈자리를 한 걸음 더 메우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참여와 시적 참여의 몫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것임을 믿는다.

투고된 작품들은 질적·양적으로 풍성한 면모를 보였다. 처절한 투쟁의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희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살려내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당선작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거리에서, 광장에서, 도청에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용감하게 맞서 싸운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았다. 진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날 서 있는 목소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단순한 선언이나 호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감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거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오히려 공감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에 대한 소박한 관심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인상을 나열하여 시작(詩作)의 의도성이 지나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의 목소리, 특히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방언을 활용한 생생한 육성으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작품들은 그 핏진성의 면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시적 방법이 이미 수많은 뛰어난 작품들로 인해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형식적 상투성으로 귀결될 위험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작품 경향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주제 의식의 깊이와 미학적 쇄신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응모작들에 주목했다.

「길에서 띄우는 편지 1」 외 5편은 광주의 상처와 진실에 닿는 길의 지난함을 세심하고도 담담한 진솔로 형상화하고 있다. 생존자로 보이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떠나는 먼 길은 우리가 광주를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며 또한 가장 먼 길임을 이 작품들을 통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연작임에도 불구하고 각 편이 나름의 완결성을 갖춘 형식미가 돋보였지만, 연작이라는 형식적 특징 때문에 주제가 흩뿌려져 있고 각 편의 주제적 선명성이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어 한 편의 작품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플라타너스」 외 4편은 강렬한 이미지로 광주의 급박하면서도 절망적 위기를 생생하

게 살려내는 지점에서 눈을 끌었다. “검은 구덩이마다 시퍼런 기다림” “저것은 생매장이 된 / 절명의 시간까지 / 구호를 외쳐댈 푸른 손” 등의 구문에서 느껴지는 섬뜩하면서도 현장성 있는 발화들은 감각적 통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지점이 있으나, “광장에 뿔났다”에서 “광장에 불났다”로의 연결이 다소 비약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흐리게 하는 점이 아쉬웠다. 통렬한 언어로 표현된 감정의 격동을 조금 가라앉히고 광주의 객관적 진실을 시 속에 녹여내는 깊이 있는 시선의 획득이 필요해 보인다.

「무릎의 온도」의 4편은 다른 작품들에서 보이는 비교적 과장되고 격양된 목소리와는 차별되는 담담한 어조와 촘촘하고 섬세한 비유를 통해 획득된 시적 완성도가 돋보였다. 「무릎의 온도」는 광주 민중 항쟁의 희생자를 ‘당신’으로 호명하면서 도청 합락 마지막 날의 긴장된 밤의 순간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희생자는 폭도가 아닌 인간이었다. 그 존재의 마지막 ‘깜빡임’을 우리에게 감각적인 깊이를 가진 문장으로 제시하면서 윤리적 책임감의 무게를 환기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누구보다 인간됨과 존재의 궁지와 궁극까지 닮아야만 했던 희생자와 생존자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포착된 ‘무릎’의 상징성이 탁월했다. 굴복과 하강의 이미지인 무릎이 감각적 교류를 통해 전진과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지점의 발견은 충분히 되새겨볼 만하다. 그것은 희생자인 ‘당신’을 두고 돌아서는 무거운 발걸음과 마지막 삶의 온기를 기억함으로써 ‘어제 죽은 얼굴’을 통해 오늘의 광주를 고민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임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 속 긴장감이 떨어지는 감상적인 몇몇 구문, 그리고 함께 투고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시적 전개와 성근 언어들 때문에 아쉽게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팝」의 7편은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상황을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화하고 잠언적 진술로 재조명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광주의 민중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절망적 상황을 객관적 상관물로 녹여내는 작업을 통해 부당한 폭력에 맞닥뜨린 극심한 존재의 위기에 처한 희생자의 참담한 마음의 파동을 생생하게 살려내었다. 또한 그것을 단지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깊이를 동반한 문장들로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을 연결하는 지점이 돋보였다. 특히, 당선작으로 고른 「야생화 —고 전옥주를 기리며」는 장식적이고 수사적인 장치를 최소한으로 구사하면서도 적합한 이미지와 무게감 있는 진술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항쟁의 마지막 밤을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해주었으며, 이는 그때의 우리 앞에 던져졌던 윤리적 책임감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살아남음을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음이 어떤 의미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어떤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었다. ‘거친 빨처럼 자라는 착검’들이 여전히 우리의 목에 가까이 겨냥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하나의 들꽃 같은 목소리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광장에 대한 열망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다른 작품들에서 자주 보이는 감각적이면서도 유려한 비유적 문장들이 지나친 시적 기교나 주제 의식과 크게 상관없는 공소한 포즈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 시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당선작으로 뽑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좋은 작품을 보내준 수상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심사위원: 김중일(시인), 신철규(시인)